

에너지자립을 추진하는 등용마을

태양과 바람이 함께 일하는 마을공동체

등용마을의 생명평화마중물과 부안시민발전소는 2008년부터 ‘재생가능 에너지 체험학교 및 캠프’를 운영하고 있다. 햇빛 에너지인 태양광 발전기와 태양열 조리기로 생산된 전기로 생활하며 음식을 익혀먹고, 소형 발전기를 직접 제작하는 등 재생가능 에너지를 직접 다루고 만지면서 생활하는 것이다.

주민들이 출자한 전국 최초의 시민발전소

부안군 등용마을(2011년 6월 6일)은 전국 최초로 주민들이 출자한 시민발전소(생居扶安)를 설립했다. 2003년



41kW

가

60%

30%

가

가

?

가

2008

가

가



자전거 발전기

2008

가

가

(Weatherization)'

1가

2

가

(焉敢生

心)

(Weatherization)'

가

가?'



에너지 학교

등용마을 만들기 중장기 계획

가

가

가



3) 바이오디젤 원료용 유채의 국내재배 기반 확보, 보리재배 감축에 따른 농가소득 작물 확보, 교토의정서 이산화탄소 감축에 대비 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. 농림부 사업으로, 2007~2009년까지 3개년 동안 500ha x 3개 지역(전북 부안, 제주도, 전남 장흥) 총 1,500ha 규모이다. 사업비는 26억 원(선로 국비 70% 18억 원, 지방비 30% 8억 원)이다. 유채 재배농가에게는 생산된 유채를 농협을 통하여 바이오디젤 기업에 계약판매하고, 쌀보리 재배 시 소득과의 차액(실제로는 쌀보리 생산의 약 80% 수준임)을 보충한다. 보조금 단가는 170만원/ha 이다.

지역과 발전 Vol. 8 67